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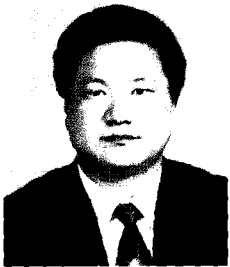
느티나무

- ▶ 과명 : 느릅나무과
- ▶ 학명 : *Zelkova serrata*
- ▶ 영명 : Zelkova Tree, Sawleaf Zelkova,
- ▶ 한명 : 槲木, 槲木

△ 느티나무

고향을 찾을 때면 동구밖에 큼지막하고 평퍼짐하게 서있는 느티나무를 마주하게 된다. 그 나무아래에는 개구장이의 떠드는 소리, 장기나 바둑을 두는 노인들,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바둑이, 이 모두가 우리와는 친근한 모습이고 추억속에 모습들이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을 튀우는 느티나무는 마을입구에서 봄소식을 알리기에 바쁘고, 한여름 무더위에는 마을주민의 피서지 역할을, 겨울철 마을 주민의 발길이 뜸 할때쯤이면 청춘남녀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1000년 이상 된 나무가 예순네그루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중 스물다섯 그루가 느티나무이다.

이렇듯 느티나무는 아주 오래살고 크게 자라는 나무여서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이면 대부분 느티나무 정자목이나 당산목을 만날수 있다. 그래서인지 느티나무가 어린이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목 식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최 명 섭
임업연구원

1. 생태적 특성

전국에 자생하는 낙엽활엽큰키나무로 수고 26cm, 직경 3m에 달하며 몽고, 시베리아, 유럽 등에 분포하는 장수목이다. 생장이 빠르고 이식도 잘되며 중성 토양을 좋아한다. 점토질이고 유기질 적으면 생장이 불량하며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므로 저습 및 염분이 있는 곳은 피하고 뿌리가 차지할 공간이 충분한곳에 식재한다.

2. 형태적 특성

회갈색 수피는 평활하지만 오래되면 비늘처럼 떨어지고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으로 길이 2~13cm, 넓이 1~5cm이고 끝은 뾰족하며 톱니가 있다. 가을에 적갈색으로 단풍이 드는데 매우 아름다우며 꽃은 자웅동주로 암꽃은 가지 끝에 한두개씩 달리고 수꽃은 새가지 밑에 10여개씩 몰려 달린다.

속리산에서 자라는 잎 끝이 둥글며 넓은 타원형의 잎이 느릅나무처럼 생긴것을 둥근잎 느티나무(var. *latifolia* Nakai)라 하며 잎이 넓은 피침형인것을 긴잎느티나무(var. *longifolia* Nakai)라고 한다. 최근 일본에서 개발된 직립느티나무는 옆으로 퍼지는 가지가 없이 모든 가지가 하늘을 향해 자라는 것도 있으며 가을철 단풍의 색깔이 붉은 색을 띠는것도 개발중이고 잎에 황금색 반점이 들어 있는 것도 개발중에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예로부터 마을의 정자목으로 많이 이용되어 온



수목으로서 수형, 수피 및 단풍이 아름다워 독립수로 적합하며 공원,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 및 대단위 조경단지에 알맞다. 도시내에서도 적응력이 높아 그늘과 녹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 이용이 적극 권장되는 수종이다. 수형이 단정하여 잔디밭 위에 식재하여도 잘 어울린다. 잔가지가 많아 잎이 떨어진 겨울에도 수형의 하늘선이 아름답다. 수명이 길고 수형이 단정하며 수관폭이 넓어서 정자목, 녹음수로 가장 훌륭한 나무이고 공원이나 가로수로도 적당한 수종이다.

4. 번식법

대부분 종자로 번식하며 10월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수선한후 파종 1개월전에 노천매장하였다가 파종하면 손쉽게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나무가 클때는 종자가 떨어져 자연 발아한 묘목을 쉽게 구할수 있는데 이것을 채취하여 이식하여 재배하기도 한다. 특별한 품종은 접목번식을 통한 번식을 하여야 모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5. 그 밖의 용도

최근들어 목질부에서 추출된 화학성분에서 폐암 치료약을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한방에서는 느티나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옛 글에는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달여서 장기간 복용하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며 심지어는 흰머리카락이 검어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 아마 오래사는 장수목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한다.

느티나무

